

석유정제시설 확충 서두르는 日本 석유업계

작년 8월에 발생하였던 걸프위기는 세계석유정제 능력에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국제석유시장에서는 공급부족우려에서 원유 이상으로 석유제품가격의 폭등이 두드러졌다. 걸프전쟁은 끝났지만 이라크군에 파괴된 쿠웨이트의 수출용석유정제시설은 금년 가동될 가망이 거의 없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제품수요는 신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한파가 닥치면 석유제품공급에 적신호가 켜질 지도 모른다」-日本에서는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차에 걸친 석유쇼크후 日本에서는 석유에서 석탄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이 진행되었다. 日本의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와 등·경유 등의 연료수요는 78년도의 \$3,996천 B/D를 피크로 매년 감소, 85년도에는 3,076천 B/D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후 수요는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89년도의 日本연료수요는 전년도대비 4.4% 증가한 3,598천 B/D였고 최저였던 85년도에 비해 17.0% 증가했다. 이 가

운데 두드러졌던 것은 연료유수요전체의 약 16%를 점하는 경유로 이 기간중의 신장률은 35.0%에 달했다. 경기확대에 따른 유통활발화를 배경으로 트럭등 수송연료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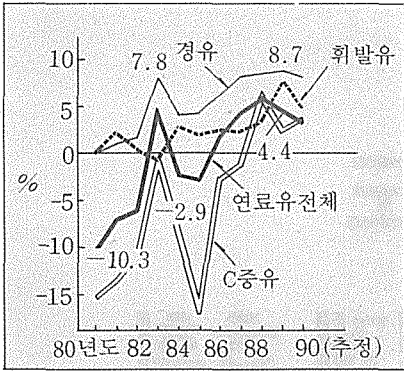
경유 이외에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연료인 나프타(28.1% 증가)와 휘발유(16.5% 증가)의 수요가 착실히 늘어난 반면, C중유(4.1% 증가)등 중유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

걸프위기가 발생했던 90년도도 日本에서는 경기확대가 계속되어 경유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추정에는 전년도비 약 3% 증가한 3,700천 B/D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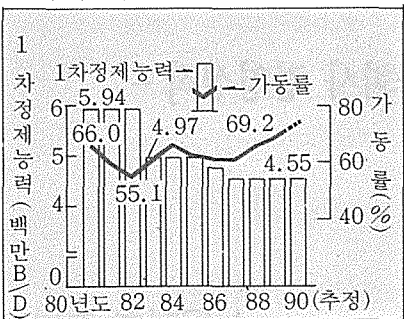
한편 89년도에 日本수요의 23.3%를 차지했던 해외로부터의 연료유수입은 쿠웨이트로부터의 공급 중단등을 반영, 전년도보다 약 20% 감소했다.

수요증가와 수입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日本석유원매회사들은 정제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1차정제설비(상압증류장치)의 가동률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일부 기업에서 90%를 돌파, 90년도 전체로 보면 74% 전후로 전년도에 비해 약 5포인트 상

연료유의 대전년도 신장률 추이



일본의 1차정제능력과 가동률 추이



승, 11년만에 70%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여진다.

석유심의회(통산장관의 자문기관)가 3월말에 조정했던 91년도 상반기 운용지침에 따르면 91년도 4~9월의 日本수요는 전년동기비 0.7% 증가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것은 걸프위기발생직후인 작년 8, 9월에 매점으로 인한 가수요가 발생, 전년실적이 실

체의 수요보다도 크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투명감은 있으나 연간 신장률은 3% 정도가 될 것이다.

90년대를 통하여 보면 트럭, 버스, 승용차의 연료 수요를 중심으로 소비량은 연평균 2%씩 증가할 전망이다. 공장건설의 지방전개가 진행되다가 여유확대로 원출의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 보더라도 경제발전을 진척시키고 있는 東南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유의 수요는 연평균 4.7%, 휘발유는 3.4% 증가를 계속할 것으로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작년 8월 예측했다. 中國과 韓國에서 정제설비를 신설할 계획은 있으나 수요신장에는 미치지못하여 中東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석유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의 석유제품수출은 금년 거의 절망적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中東에 원유만이 아닌 정제면에서도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에너지청은 83년 이후 1차정제설비의 폐기를 지도하여 왔던 석유정책을 180도 전환, 빠르면 6월에 석유심의회에 답신을 받아 18년만에 1차정제설비의 개조와 신·증설에 의한 정제능력확대를 인정할 방침이다. ♣

진실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물의 외형들을 모두 벗겨내고

내부의 본질을 응시하라.

사물의 여러가지 행동의 근원을 보고

고통이 무엇이고 쾌락, 고통, 명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인간의 불안이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고

결코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라.

〈M. 아우렐리우스〉